

늘푸른물결

통권 266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11 2021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전국 공동 행동!”

당진환경운동연합이 10월 14일 당진화력 앞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상향, 2030년 탈석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이 탄소중립위원회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를 규탄하고 감축목표 상향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39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일인시위 등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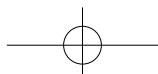


"세월호 철저한 진상규명"



자연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





첫 걸음 댄 소들섬 지키기...“모든 행정력 동원해 달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로 상향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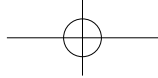


“일상 속에 버려진 쓰레기에 너무 익숙”

- ▶ 발행일 2021. 11.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이동준, 유형민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angjin.kfem.or.kr

2_늘푸른물결 | 2021.11

- 3 이달의 시
| 열매 / 오세영
- 4 지역환경초점1
| 첫 걸음 댄 소들섬 지키기...“모든 행정력 동원해 달라”
- 6 지역환경초점2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로 상향하라”
- 8 지역환경단신1
| “일상 속에 버려진 쓰레기에 너무 익숙”
- 9 지역환경단신2
| 지구를 생각하고 필요한 물품을 싸게 사서 좋아요~
| “당진의 환경문제는 뭔가요?”
- 10 지역환경단신3
| 당진시 공론화위원회, 산폐장 관리 위한 권고문 제출
- 11 지역환경단신4
| “충남 탄소중립위에 ‘당사자’ 도민 없어... 재구성해야”
- 12 지역환경단신5
| 충남 기후에너지 활동가 당진에 모여
- 13 10월 살림살이
- 14 전국환경초점1
| ‘탈석탄’ 못박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 16 전국환경초점2
| ‘녹조 라떼’로 키운 채소에서 발암물질 독소 검출
- 18 석탄씨를 구해줘
| 제 14화 좋은 전기, 나쁜 전기
- 20 10월 활동소식
- 22 11월 주요사업 계획
-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4 광고



열매

오세영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가
 둥글어야 하는가.
 가시나무도 향기로운 그의 열매 탕자만은
 둥글다.
 땅으로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날카롭지만
 하늘로 하늘로 뻗어 가는 가지는
 뾰족하지만
 스스로 익어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
 덩석
 한 입에 물어 깨무는
 탐스런 한 알의 능금
 먹는 자의 이빨은 예리하지만
 먹히는 능금은 부드럽다.
 그대는 아는가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작가소개 - 오세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박사
 1968년 현대문학 '잠깨는 추상' 등단
 2012년 목월 문학상

첫 걸음 땀 소들섬 지키기... “모든 행정력 동원해 달라”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위한 주민설명회 지난 10월 29일 개최
11월 11일까지 지정계획서 공람...이르면 내년 5월 지정 여부 결정




삽교호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현황

- 지정위치** ✓ 삽교호수면 및 소들섬과 인근토지
- 법정소재지** ✓ 우강면 신촌리, 부장리
- 지정면적** ✓ 2,747,930.6㎡ (약83만평)
- 존속기간** ✓ 해제시 까지

보호구역 지정 이유

- ✓ 멸종위기종 서식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지정



지도 중 흰선으로 표시된 인쪽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소들섬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뗐지만, 주민들은 철탑 공사가 강행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29일 당진시는 삽교호 수면과 소들섬 등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주민설명회를 우강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한국전력공사 관계자가 방문을 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한전 측에서 5분 만에 되돌아가면서 상황은 마무리됐고, 설명회는 시작됐다.

주민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차분히 설명을 듣는 모습이였다. 그리고 설명회가 끝나고 주민들은 당진시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모든 행정력 동원을 부탁했다.

우강면 주민 조영식 씨는 “지난 7월 한전에서 철탑 공사를 강행했고, 반대했던 주민 일부는 검찰에 송치됐다. 그리고 500만원씩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서 “오늘(29일) 아침에도 한전에서는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도 또 검찰에 송

치될까 싶어서 주민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막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주민들을 비겁하게 만들었다. 주민들은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주장하는데, 시에서는 지지부진하게 추진했다. 아름다운 지역을 보호하자는 주민들이 나쁜가”라며 “보호구역 지정이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해주기를 바란다”고 부탁했고, 이에 주민들은 동의하는 박수를 쳤다.

당진시 관계자는 “법과 상식선에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하고, 설명회는 마무리됐다.

한편, 북당진-신당정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시민들은 소들섬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으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내에서는 각종 행위 제한이나 출입제한 등의 제한이 생긴다. 특히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훼손행위가 제한된

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을 추진했다.

당진시는 삽교호 수면과 소들섬의 자연을 지
키고 멸종위기종 서식환경 보전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삽교호 수면 및 소들섬과 인근 토지
169개 필지, 면적 274만7,930㎡에 야생생물 보호
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는 삽교호 야생
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이유로 △위치
적합성(사람의 접근이 적은 하중도가 각종 생물
의 서식지로 활용, 삽교호는 먹이를 제공하는 넓
은 농경지와 안정된 휴식을 제공하는 호수와 내
부의 소들섬, 솟벌섬과 같은 하중도가 자리하고
있어 월동조류 서식지로서 최적의 조건) △생물
다양성(철새의 이동경로 요충지, 30여종, 최대 8
만마리의 월동 조류가 도래하는 지역, 조류뿐만
아니라 포유류, 양서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이 존

재) △연계성(인근 수역에 아산시 야생생물 보호
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연계성 뛰어남) 등을 제시
했다.

현장조사 결과에서는 삽교호 수면과 소들섬
일원에서 △양서류-황소개구리, 금개구리, 참개
구리, 청개구리 △파충류-무자치, 줄장치뱀 △어
류-뱀장어, 잉어, 붕어, 떡붕어, 송어, 메기 등 16
종 △조류-큰기러기, 고방오리, 황로, 황조롱이
등 16종 △포유류-고라니, 삵, 너구리 등이 발견
됐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11월 11일
까지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계획서 공람을 진
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정계획서를 수정
해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5월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사진 출처: 당진신문]

당진환경운동연합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계획 환영”

과거 보호구역 지정 제안 무산... “생물다양성 보전 계기 삼아야”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이 27일 논평을 내고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계획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진시는 지난 21일 우강면 소들섬 일원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계획서 공람과 주민설명
회 개최를 공고했다. 내용은 우강면 신촌리 소재 소들섬 및 삽교호 수면과 인근 토지
2,747,930.6㎡를 서식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당진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
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진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과거 당진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소들섬(당시 무명
섬)을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했었으나 당시 우강지역에서 관광지 개발 등의 계획을 가
지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시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계
획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지정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의 계기로 삼기를 희망한다”며 “조속
한 지정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당진신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로 상향하라”

14일 환경연합 집중행동, 당진화력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당진환경운동연합이 10월 14일 당진화력 앞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상향, 2030년 탈석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10월 14일 당진화력 앞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 상향, 2030년 탈석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 집중행동의 일

환이며 환경운동연합은 탄소중립위원회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를 규탄하고 감축목표 상향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39개 지역에서 기자회견, 일인시위 등을 동시에 진행했다.

[기자회견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로 상향하라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다. 점차 뜨거워지는 지구로 인해 올 여름에도 수 많은 폭염과 홍수, 재난이 밀어닥쳤다. 바야흐로 기후 재앙의 시대다. (중략) 한국 역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당사국으로서 기후위기 문제에 책임질 것을 요구받고 있다. (중략)

10월 8일,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감축목표는 실망스럽다. 2030년까지 단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기후과학의 권고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30

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5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이렇게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는 감축목표가 나온 데에는 산업계에 대한 느슨한 기준이 적용된 탓이 크다. 예정된 2030년의 순배출량인 4억 3천 6백만톤 중, 산업계는 무려 절반에 가까운 2억 2천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전환,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타 부문들이 평균 37%의 감축을 단행하는 동안 산업 부문은 고작 14%를 감축한다. 이마저도 연료 및 원료 전환과 같이 한계가 명백한 기술에 의존한 감축량이다. (중략)

이번 감축목표에서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이 제대로 담기지 못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신규 건설 중인 (중략) 석탄발전소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중략) 정부는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언제까지 석탄발전 신규 건설 사업을 방치할 것인가. (중략)

흡수와 제거 부문에서 2천 6백만톤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문제다. 이는 기존 산림을 벌채한 후 재조림하는 산림 경영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30억 그루의 나무를 베다는 산림청의 어처구니없는 계획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3천 5백만톤이 할당된 국외감축분 역시 해외 조림, 배출권 구매 등을 통해 배출의 책임을 타국에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CCUS와 같이 아직 개발 단계인 미래기술에 1천만톤의 감축을 의존하는 것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2030년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8년이다. 지금 상용화되지도 못한 미래의 신기술에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불확실하고 부족한 감축목표를 내놓았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닥쳐올 기후위기를 예견했으며 위기는 더욱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2018년 한국을 포함한 세계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최근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각국의 2030년 감축목표를 종합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축은 커녕 16% 이상의 초과 배출이 예측된다. 결국 지금 위기를 막기 위해선 2030년 감축목표의 급격한 상향과 사회 대전환을 감수한 대량의 감축이 필요한 것이다.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당진화력과 현대제철, GS-EPG 등으로 인해 당진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온실가스배출량 압도적 1위 지역이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에 2030년 탈석탄,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목표를 촉구한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는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하겠다는 정부와 탄소중립위를 강하게 규탄한다.

하나. 탄소중립위원회와 정부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할 감축목표의 강행을 중단하라.

하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0% 이상으로 상향하라.

하나. 불충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수립하라.

2021년 10월 14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일상 속에 버려진 쓰레기에 너무 익숙”

당진환경운동연합, 4차 물살리기 플로깅 부곡공단 주변 해안 환경정화활동 펼쳐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 황성렬)은 지난 10월 30일 시민과 함께하는 물살리기 4차 플로깅 환경정화활동을 부곡공단 주변해안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 4차 시민과 함께하는 물살리기 플로깅은 2021년 마지막 환경정화 활동으로, 가족 단위의 시민 23명이 참여했다.

2인 1조로 펼쳐진 플로깅은 물티슈를 시작으로 담배꽂초, 패트병, 커피캔, 아이스크림 포장지, 일회용 종이컵, 과자껍질 등을 해양쓰레기와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플로깅에 참여한 박희선 씨는 “작은 힘이지만 당진의 바다환경을 살리는데 힘을 보탤 수 있어 뿌듯했다”며 “바닷가의 쓰레기 중에 담배꽂초가 가장 많았는데 담배 피우는 분들이 담배꽂

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플로깅에 처음 참여했다는 김혜선 씨는 “사실 플로깅을 할 때에는 이곳에 쓰레기가 있을지 의문스러웠는데 버려진 낚시바늘, 과자봉지 등이 생각보다 많아 쓰레기봉투가 금방 채워졌다”며 “평소 쓰레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나쳐 왔다. 일상속에 버려진 쓰레기에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정진 사무국장은 “우리는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관찰한 첫 번째 세대이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며 “차가운 날씨에 고생한 참가자들이 서로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모습에 활동한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출처 : 당진신문]

지난 10월 30일 시민과 함께하는 물살리기 4차 플로깅 환경정화활동을 부곡공단 주변해안 중심으로 진행했다.



지구를 생각하고, 필요한 물품을 싸게 사서 좋아요~

에코생협 당진점 나눔장터 열려



10월 22일 나눔장터가 에코생협 주차장에서 열었다.

지난 10월 22일 에코생협 당진점 나눔장터가 오전 10시부터 오후4시까지 6시간 동안 에코생협 앞 주차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매년 10월에 진행되는 에코생협 나눔장터는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신발, 책, 가전기기 등 다양한 중고용품을 모아 판매하는 재활용 장터다. 뿐만 아니라 멀치조림, 배추건절이, 무생

채, 어묵국 등 반찬을 만들어 팔기도 했다.

에코생협 당진점은 조합원들의 참여 속에 자칫 쓰레기로 버려질 수 있는 물품을 나눔장터에서 재활용해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한편 나눔장터로 모아진 판매 수익을 연말에 기부하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당진의 환경문제는 뭔가요?”

탑동초 환경동아리 당진환경연합 사무실 방문

토요일인 10월 16일 탑동초등학교 환경동아리 학생 7명과 교사 1명이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방문해 당진의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교육은 당진환경운동연합 소개, 당진의 환경문제는 무엇인지, 중요한 환경문제는

어떤 것인지, 궁금한 내용 물어보기 등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교육을 진행한 김정진 사무국장은 당진의 대기오염,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인 당진화력과 현대제철의 문제를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당진시 공론화위원회, 산폐장 관리 위한 권고문 제출

“민간환경감시센터 신설, 투명하게 운영돼야” 폐기물처리시설 안전관리 논의...소통 역할 기대

안전한 산폐장 관리를 위한 당진시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산폐장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권고안을 당진시에 제출했다.

19일 당진시는 지난 5개월간의 논의 결과를 김홍장 당진시장에게 제출하는 산폐장공론화위원회 권고문 보고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5월 공론화위원회는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지난 6월 시민워크숍을 개최해 의제를 선정했으며, 7월부터 9월까지 공론화위원 현장 방문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논의를 거쳐 지난 9월 30일 시민보고회를 통해 최종 권고안을 작성한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세부 합의사항이 담겨진 권고문에는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 방안 △주민(시민)통제기구 설치 △주민지원 방안 △산업폐기물을 포함 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지자체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공론화 제도화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제별 논의 결과 내용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 방안으로는 (주)제이엔텍의 경우 완충녹지 추가 식재, 예비펌프 추가 확보 등 급습 폭우 대책 수립 등이 있다.

(주)대성에너지센터는 사면안전성을 강화

하고, 매립시공 관련 안전성 진단을 추가 실시하며, 매립장 바다 차수 효과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민 통제기구 설치 관련해서는 공론화위원회는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신설하고,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감시활동에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산업폐기물 포함 폐기물 관련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산업폐기물의 발생지 권역별 처리 원칙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폐기물도 생활폐기물과 같이 주민참여, 주민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한 공론화 제도화 방안으로는 사업 추진으로 주민간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 등에 대해 정책 결정에 앞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공론장을 열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조례 제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공론화위원회 보고를 마친 당진시는 앞으로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규정 등 충남연구원에 현안과제 의뢰 및 2022년도 산폐장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출처: 당진신문 일부 발췌]

"충남 탄소중립위에 '당사자' 도민 없어... 재구성해야"

‘충남탄중위해체요구 시민사회단체’ 4일 충청도청에서 기자회견



지난 10월 13일 '충남탄중위해체요구 시민사회단체'는 4일 충청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0월 13일 충청도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법정 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충청도(도지사 양승조)에 따르면 탄소중립위원회는 총 8개 분과 8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도지사, 도의원, 전문가 및 각계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위원회가 전문가 집단과 연구진으로 꾸려져 정작 당사자인 충청도민들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청도가 구성한 탄소중립위원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충남탄중위해체요구 시민사회단체'는 4일 충청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문가 중심의 충청도 탄소중립위원회를 해체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위원회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탄중위해체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에는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남녹색당, 정의당 충남

도당, 당진환경운동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아산시민연대, 천안민주단체연대회의의 등을 비롯한 충남 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58기 화력발전소 중 29기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위치한 충남은 탄소 중립이 주요한 화두이다. 충남 곳곳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송전탑 문제로 피해와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생활양식, 산업,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도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발표한 탄소중립위원회는 도민 참여에 대하나 고민이 없이 교수, 연구원 중심으로 꾸려졌다. 정의로운 전환 분과에는 노동자가 없고, 농업을 다룰 녹색생활분과에는 농민이 없다. 충청도는 중앙 탄소중립위원회에 청소년, 종교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이유를 고민이나 해 봤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체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충청도민은 피동적인 교육과 홍보의 대상이 아니라 탄소중립 과정에서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 탄소중립을 실현할 주체"라며 덧붙였다.

[출처: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충남 기후에너지 활동가 당진에 모여

재생에너지 현장 견학, 토론회 등 워크숍 진행

충남 기후에너지 활동가들이 10월 28일~29일 당진에 모여 에너지전환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먼저 28일 당진화력 내 소수력발전소, 회처리장 내 수상 및 육상 태양광, 당진에코파워 태양광 발전소 등을 견학한데 이

어 석문문화스포츠센터에서 아스콘업체 환경피해 관련 주민 간담회와 지역에너지전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어 왜목마을로 옮겨 저녁에는 충남 기후에너지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처리장 내 수상 및 육상 태양광 견학



당진에코파워 태양광 발전소 견학



당진화력 내 소수력발전소 견학

2021년 10월 결산보고서 (사업기간: 2021년 10월 1일 ~ 10월 31일)

수입액

[항명]	[목명]	수입집계	비고
이월금	9월 이월금	4,200,206	전월이월금
회원회비	개인회비	6,035,000	CMS, 자동이체, 지로, 특별회비
	[항집계]	6,035,000	
후원금	일반후원	1,137,900	개인 후원금
	재정사업	0	후원금
	[항집계]	1,137,900	
사업수입	회원사업	0	회원사업
	공모사업	0	공모사업
	기타사업	0	기타사업 수입
	[항집계]	0	
기타수입	기타수입	0	예금이자
	[항집계]	0	
월수입 총액	계	7,172,900	
수입 총액	계	11,373,106	전월이월금 포함

지출액

[항명]	[목명]	지출집계	비고
경상비	제세공과금	506,180	자동차보험료, 취득세, 전화료, 전기료, 신문대금, 수수료 등
	유지관리비	97,900	관리비, 집기구입, 차량수리비, 실내등유, 커피구입 등
	자산취득비	0	비품, 자산구입
	복지후생비	164,000	업무추진비, 식대 등
	[항집계]	768,080	
인건비	급여	3,230,000	상근자 2인
	상여	0	
	퇴직적립금	360,840	
	사회보험료	441,960	
	[항집계]	4,032,800	
사업비	일반, 공모사업	2,133,240	공모사업, 석탄화력, 송전탑, 등 현안사업 준비
	조직, 회원사업	944,430	총회, 소식지 인쇄 및 발송, 운영위 및 편집위원회, 함길구독 외
	정책, 조사사업	0	교육 및 정책사업비
	연대사업비	461,860	중앙 분담금, 연대사업, 충남환경연합 분담금 등
	기획재정사업	270,380	후원의밤
	[항집계]	3,809,910	
기금조성비	장기발전기금	100,000	장기발전기금
	[항집계]	100,000	
지출총액	계	8,710,790	

2021년 10월 잔액 2,662,316

‘탈석탄’ 못박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탄중위, 시나리오 2개안 심의·의결 기존 3개안 중 석탄유지 안은 최종 퇴출
 2030 NDC도 2018년 배출대비 40%로 확정
 기후단체 “기후위기 대응 불가” 비판에 산업계 “초안 3개 중 가장 높은 부담안”

18일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가 출범 142일 만에 국내 탄소 순배출량(흡수원을 포함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2개)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중략)

이로써, 한국은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B안)하거나, 나아가 가스발전(LNG)까지 포함한 화력발전 자체를 중단하는 방안(A안)을 뼈대로 하는 2가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미 이행과제로 논의해온 2030년 탄소감축목표(NDC·엔디시)는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다음달 국제사회에 제출한다.

석탄은 현재 전체 탄소배출량의 30%를 차지한다. 엘엔지 등을 포함한 화력발전 전체 비중은 39%를 넘는다. 거대한 전환을 목표로 한 셈이지만, 최종안 역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 기술인 포집저장기술 등을 활용해 상쇄해야할 탄소 배출량만 8400만톤~1억1730만톤에 이르러 당장의 감축 과제를 미래로 미룬다는 비판은 여전히 남게 됐다.

정부는 깜깜이 논란을 불러온 탄소감축 비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은 0.07% 감소할 규모이지만 세수 증대를 감안할 때 고용은 0~0.02%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 탈석탄 시점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안을 발표한 윤순진 탄중위 민간위원장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위해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한) 기존 2·3안을 중심으로 (최종안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5일 탄중위가 내놓은 초안에서 1안(석탄·가스 9.5% 유지)과 2안(가스 7.6% 유지)을 따를 경우 2050년 국내 탄소배출량이 각각 2570만톤, 1840만톤이어서 “탄중위가 탄소중립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내몰린 바 있다. 이후 두달여 논의 끝에 1안을 완전히 폐기됐고, 2안은 발전·산업·건물 분야 등의 배출량을 축소해 전체 가스발전 비중을 5%로 제한했다. 2030 엔디시대 로면 향후 8년 동안 석탄부문 배출량 21.8%, 가스 19.5%가 유지된다. 때문에 실제 ‘탈석탄’은 2030년 이후가 되며, 현재로서 도달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산업발전 국가의 탈석탄이 2030년까지 완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2050년 가스는 필요한가

한국에서 자연 흡수량을 제외한 순수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6억8630만톤) 가운데 39%(2억6960만톤)를 전환(발전) 부문에서 배출한다. 시나리오안대로라면, 화석연료 중심(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70%)의 현재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 60.9%(B안)~70.8%(A안)로 전환된다. 현재 에너지원의 25% 안팎을 구성하는 원자력발전은

6.1(A안)~7.2(B안)%로 줄어든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고정한 뒤 2개 안을 가르는 지점은 가스 발전, 무탄소 가스터빈, 동북아그리드 등 미래 기술과 관련된다.

B안대로 2050년에도 가스발전을 남겨두는 이유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탄소포집저장 기술이나 공기 중 탄소포집을 활용해 (가스발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한다는 계획”으로 “엘엔지는 미래의 기술에 숙제를 넘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로만 100% 할 수 없어 변동성이 강한 재생에너지를 보완해줄 전력으로 가스발전이 일부는 필요하다”고 짚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 5월18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204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 NDC 상향으로 GDP 0.0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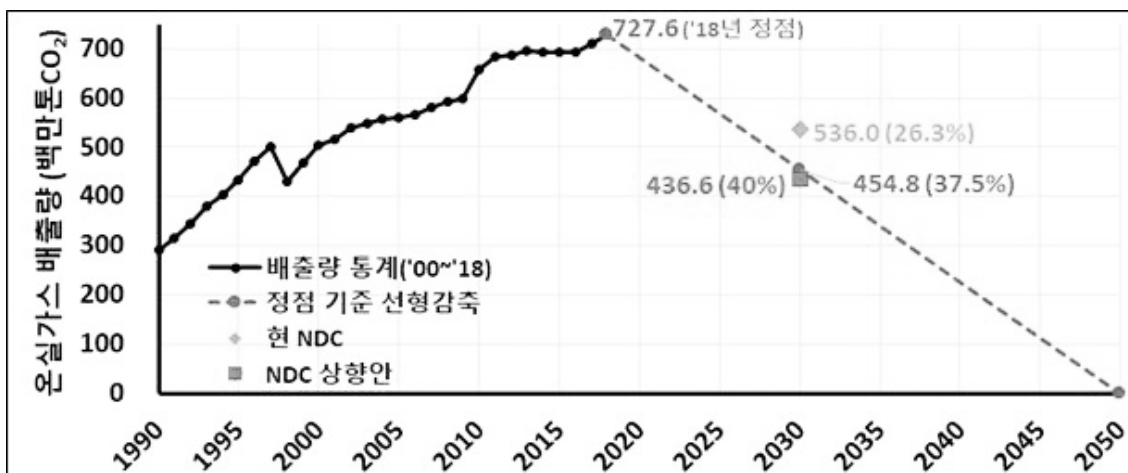
이날 탄중위는 2030 엔디시를 ‘2018년 배출량

기준 40%’로 잡고 거시경제분석 모델에 대입할 경우, 국내총생산은 0.07% 감소하지만 세수가 늘어날 것을 고려할 때 고용은 0~0.02% 늘어날 것이란 한국환경연구원의 분석 전망도 소개했다.

불투명한 탄소감축 비용은 줄기차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시나리오 오는 8월 발표한 초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순배출량 0안이며 산업부문 배출량은 초안보다 더욱 강화된 수준으로 설정됐다”며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기후·환경단체 등은 소극적이라고 비판한다. 이날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중위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시위를 열어 “탄중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령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상용화 시점이 불분명한 기술과 국제적 인정 기준이 불확실한 국외 감축 등으로 온실가스를 제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 일부 발췌]



2018년 배출 정점 기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녹조 라떼'로 키운 채소에서 발암물질 독소 검출

농작물에 녹조 독성 축적 국내 최초 확인, 상추 잎 6장 먹으면 기준치 초과

낙동강 녹조 물로 재배한 상추에서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그동안 정부는 녹조의 독성이 농작물에 흡수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강물 속 녹조 독성이 농작물에 축적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에 확인된 마이크로시스틴 축적량은 상추 1kg에 67.9 마이크로그램으로 상추 잎 6장을 먹으면 WHO가 정한 성인(몸무게 60kg 기준)의 섭취 기준치를 넘게 된다. 몸무게 30kg의 초등학생의 경우 상추 잎 3장을 먹으면 WHO 기준치(1.2ug)를 넘게 되는 셈이다.

이번 실험은 지난 8월 녹조가 핀 낙동강 물로 상추모종을 5일 동안 재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추 재배에 사용한 물은 낙동강 이노정 앞에서 채수했다. 국립부경대학교 이승준교수 연구팀이 상추 재배 물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리터(L)당 600ppb의 마이크로시스틴(MCs)이 검출됐다.

이 물로 재배한 상추의 마이크로시스틴(MCs) 분석은 국립 부경대 이상길 교수 연구팀이 진행했다. 그 결과 상추잎에서 녹조의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이다. 마이크로시스틴(MCs)은 청산가리 100배 이상의 독성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한 독소이다. (중략)



상추실험 모습. 낙동강 이노정 근처에서 뜬 녹조물로 5일 간 재배했다.



지난 8월 금강의 한 수로에 녹조물이 흐르고 있다

금강 서포양수장에서 마이크로시스틴 5035ppb 검출, 농작물 안전 우려

국내 농작물에 녹조 독성이 축적된다는 사실은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농업용수로 재배하는 농작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8월부터 환경단체와 오마이뉴스, MBC PD수첩,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녹조 독성 측정 결과 농업용수로 쓰는 낙동강과 금강 물에서 고농도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과 전북의 매우 넓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금강 서포양수장 앞에서는

5035ppb, 금강 용두 양수장 인근의 물에서는 1509ppb가 나왔다. 금강 뿐만 아니라 낙동강에서도 양수장과 멀지 않은 곳에서 고농도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그동안 녹조 독성이 농작물에 흡수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근거는 2016년 농어촌공사가 주도한 실험이었다. 당시 농어촌공사가 실험에 사용한 농업용수 중 가장 높은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24ppb였다. 농어촌공사는 그 실험을 통해 벼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실험은 벼만 대상으로 했고 비교적 낮은 독성의 용수로 한 실험이어서 한계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략)

중국 윈난성 덴츠호(Dian Lake)의 경우 마이크로시스틴(MCs) 함유량($\mu\text{g/L}$, ppb)이 각각 120 / 600 / 3,000일 때 벼 모종(Seedling)에 2.94 / 5.12 / 5.40의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뿌리채소, 잎채소 등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축적이 확인된 사례가 있다. (중략)

낙동강 스포츠벨리에서 WHO 수상 레저 기준치의 33배 독성 나와

녹조가 창궐하는 강에서 행해지는 수상 레포츠 활동에도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달성군이 운영하는 낙동강의 대표적인 수상 레포츠 시설 '낙동강 스포츠벨리'에서 측정된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는 675ppb. WHO가 수상 레크레이션을 할 때 '높은 위험성'이 있다고 규정한 기준치(high risk limit)인 20ppb의 33배나 되는 수치다. (중략)

지난 8월에 환경단체가 발표한 측정 결과에서 금강의 옹포대교 근처 수상레저 시설에서는 낙동강 스포츠벨리보다 2배 이상 높은 1562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중략)

4대강 사업 이후 수면이 넓어지고 물흐름이 느려지자 강 곳곳에 수상레포츠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물흐름이 멈춘 4대강에서는 녹조라 때라 불릴 만큼 녹조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 녹조 증가에 따라 독성도 점점 심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경각심은 미약한 실정이다. (중략)

청산가리 독성의 100배가 넘는다는 녹조의 독성은 때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지난 2003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17살 소년이 무더위에 친구들과 녹조가 있는 물에 들어가 놀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검시 결과 녹조 독성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에서는 매년 반려견들이 주인과 물에서 놀다가 죽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에서는 반려견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기준치도 설정하고 있다. 오레곤 주의 경우 반려견 마이크로시스틴 기준치는 0.2ppb로 되어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조류경보제 친수활동 구간 늘리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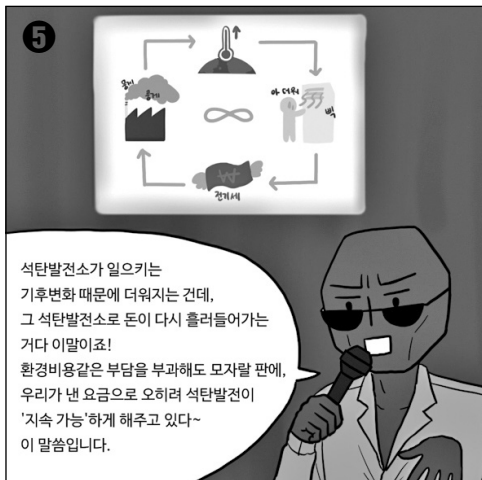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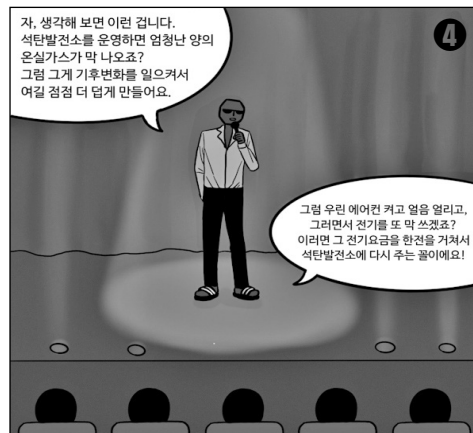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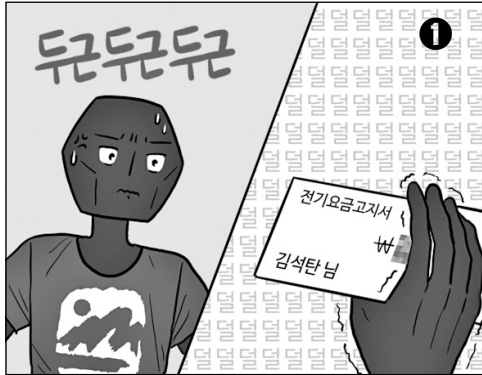
녹조의 농도를 측정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지역부를 경보 발령하는 친수구역(물놀이구역)은 전국에서 단 한 곳, 한강 서울 구간에만 설정돼 있다. 그러나 한강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은 다른 곳들은 최소한의 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정애 장관에게 ‘현재 한강 1군데만 친수활동 조류경보제 구간으로 설정돼 있는데, 국민 건강을 위해 친수활동 구간의 현실화를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정애 장관은 ‘친수활동 구간의 측정 지점도 늘리고 녹조 관련 데이터를 더 많이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글·사진 출처:뉴스타파 일부 발췌]

석탄씨를
구해줘

제 14화 좋은 전기, 나쁜 전기

14화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석탄씨를 구해줘

제 14화 좋은 전기, 나쁜 전기

14화



김석탄이 알려주마

매년 여름이면 모두가 전기요금 걱정을 하곤 하지만 사실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평균 전기요금의 절반수준으로 값싸. 그러다 보니 1인당 전기사용량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 그렇지만 이런 '기후위기'시대에 더 이상 그럴 수는 없지. 석탄발전처럼 많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발전소들에는 환경비용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기의 값어치'를 책임있게 현실화해야 해.

10 석탄발전 퇴출하자

김석탄이 알려주마

매년 여름이면 모두가 전기요금 걱정을 하곤 하지만, 사실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평균 전기요금의 절반 수준으로 값싸. 그러다 보니 1인당 전기사용량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 그렇지만 이런 '기후위기'시대에 더 이상 그럴 수는 없지. 석탄발전처럼 많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발전소들에는 환경비용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기의 값어치'를 책임있게 현실화해야 해.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한다구!

withkfem.or.kr

환경운동연합 일흔닷기 프로젝트

깨끗한 석탄씨를 살리주세요

www.withkfem.or.kr

환경운동연합



시민과 함께하는 물 살리기 플로깅

10월 2일 삼교호 주변에서 2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제 3차 물살리기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10월 운영위원회 간담회 진행

10월 05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전국 행동

10월 14일 당진화력발전소 앞에서 기후 위기 당진행동은 '2030년 온실가스를 50% 감축하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기자회견 참가

10월 19일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과 신공항반대전국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는 기자회견에 기후위기 충남행동이 함께 연대하였습니다.



2021년 에코생협 당진점 나눔장터 행사

10월 22일 에코생협 당진점에서 나눔장터를 열었습니다. 이날 그동안 모아온 시민분들의 물품과 반찬만들기 등 판매한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지역에너지전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충남 활동가 워크숍

충남 기후에너지 활동가들이 10월 28일~29일 당진에 모여 에너지전환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01 일반사업

- ❖ 11/02(화) 10:00 정의로운 전환 충남시민사회단체 간담회 - 내포혁신플랫폼
- 15:30 '석탄을 넘어서' 경남캠페인 준비 회의 - 온라인
- 18:30 11월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11/03(수) 10:00 당진시농민회 통일 벼 베기 행사 - 석문간척지
- ❖ 11/04(목) 11:00 충남도 탄소중립위 해체 요구 기자회견 - 충남도청
- ❖ 11/05(금) 14:00 (사)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사무실 개소식- 내포혁신플랫폼
- 18:30 후원의 밤 추진 기획단 2차 회의 - 사무실
- ❖ 11/08(월) 15:00 충남환경보건열린포럼 준비 회의 - 충남지속협
- ❖ 11/09(화) 11:00 에코생협 당진점 운영위 회의 - 에코생협 당진점
- 14:00 충남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성과보고회 - 스플라스 리솜
- ❖ 11/11(목) 10:00 제7회 금강한마당 - 청주 문암생태공원
- 10:00 제철산단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위 - 현대제철 문화센터
- 14:00 환경연합 전국사무국장단 회의 - 온라인
- ❖ 11/15(월) 14:00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이사회 - 온라인
- 16:00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 회의 - 내포혁신플랫폼
- ❖ 11/18(목) 18:30 당진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 메가패밀리뷔페
- ❖ 11/20(토) 13:00 경기기후포럼 토론회 - 수원
- 13:30 당진교육청 환경교육한마당 - 당진초 체육관
- ❖ 11/22(월) 11:00 당진교육청장 간담회 - 미정
- ❖ 11/24(수) 13:30 석탄을 넘어서 경남집회 - 창원 잔디광장
- ❖ 11/25(목) 11:00 금강유역환경회의 운영위 회의 - 대전충남녹색연합
- ❖ 11/30(화) 10:00 충남환경보건열린포럼 - 내포 J컨벤션
- 17:00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주부환경지킴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11/29(월) 11시30분

03 지역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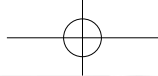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당정 간 345kV 송전선로

○ **새내기 회원**

인현옥(읍내동), 채종국(서천군)

○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삼옥 강은구 강은식 고낙현 고락일 고영훈 고재만 고중민 곽성심
 광영복 구경숙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중원 길호중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광호 김권기 김기권 김기동 김기재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균 김동길 김동수 김동진 김동철 김동환 김두현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백선 김병구 김병빈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석규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세진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영준 김예나 김용준
 김용훈 김원용 김윤각 김윤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응열 김일권 김재성 김재영 김재진 김정곤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진 김중균 김중래 김중범 김주석 김지환 김진 김진남 김진용 김진호 김철환 김태기 김필배
 김하정 김향곤 김현기 김현림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장 김홍희 김홍환 나상흠 남철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열 류경자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언 박경일 박규섭 박근성 박기남 박기술 박미상 박미현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래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영환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종대 박종연 박종화 박창순 박태식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훈 박희경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자옥 배국희
 배병호 백광현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지현 선오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형식 신경상 신동균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신현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동책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자호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양정만 엄기태 오동원 오윤정 오의환 오주석 오현동
 오훈순 오동기 원유영 원종경 유성 유영석 유중준 유현경 유행민 육이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형순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중
 이능용 이대우 이덕표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봉기 이상록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새봄 이석규 이선이 이성남 이수현 이순영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인숙 이일구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훈 이정선
 이정옥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중호 이중영 이창규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해은 이현남
 이현숙 이호경 이호선 이홍숙 인남교 인만교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옥출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중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봉식 정상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의철 정종한 정중섭 정찬관 정치용 조강호 조대연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수현 조순형 조신형 조용재 조재형 조한영 주영권 주은자 지광선 차기능 차재석 친선희 천혜경 최강부
 최기승 최대실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욱 최세호 최연묵 최연이 최오상 최완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용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상무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영우 한원희 한청수 함효진 허인옥 현민 호상기
 호용기 홍기석 홍덕선 홍두표 홍명옥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김현기)
 귀염둥이아띠어린이집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별나라어린이집 보덕사 상록인쇄사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위너교육이벤트 율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환경운동연합에코생협



자연과 공존하고 삶을 지키는 1.5°C



2021. 11. 18(목) 저녁 6시 30분
메가패밀리뷔페(당진중앙1로 195 골드프라자 3층)

□ 진행순서

- 당진환경운동연합 활동 소개
- 기후위기 주제 강연(양의원영 국회의원)
- 공동의장단 인사
- 연대사 및 축사
- 참가자 나도 한마디

지구온도 상승 1.5°C 도달시점이 10년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고 삶을 지키는 1.5°C를 위한 활동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후원 계좌 농협 351-1193-3239-73 사단법인당진환경운동연합

※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2022년 1월 초 일괄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문의전화 041-355-7661 □이메일 dangjin@kfem.or.kr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